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1228-0180

# 光州日報

부자결혼의 꿈은, **이루어진다!!!**  
 (대우건설) 대표 임영민  
 광주지사 0821228-3222



광주 공략에 나선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가 9일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왼쪽) 민주당 유종필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의 광주 총력전을 비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유종필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이날 오후 열린우리당의 광주 총력전을 비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 소비심리 석달째 내리막

고유가 여파 등... 기대지수 100.6

고유가 여파 등으로 소비심리가 3개월 연속 위축되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4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환경,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기대지수는 100.6으로 전달에 비해 2.8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번 하락폭은 4.4포인트 내렸던 2005년 6월 이후 10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대지수는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넘었지만 지난 1월 104.5에서 2월에 103.8로 6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후 3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계절조정지수도 전달보다 무려 4.1포인트나 낮은 96.6을 기록해 8개월만에 기준치 아래로 떨어졌다.

기대지수가 100을 넘으면 6개월 후 경기나 생활환경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많은 것을 뜻한다. <관련기사 11면>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인 계층은 95.1로 전달보다 2.3포인트 올랐을 뿐 나머지 전 계층은 하락했다. 특히 월평균소득 100만~199만원인 계층은 6.1포인트나 하락한 96.6에 그쳐 4개월만에 기준치보다 내려앉았다. 200만~299만원인 계층은 3.0포인트, 300만~399만원인 계층은 3.4포인트, 400만원 이상 계층은 0.4포인트가 각각 내렸지만 기준치는 상회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기대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 이하 수준을 보인 반면 30대는 기준치 이상을 유지하며 1.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고 20대는 실업자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6포인트 올랐다. 세부지수별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가 전달보다 무려 6.8포인트나 떨어져 96.4를 기록, 5개월만에 기준치를 하회했다. 생활환경과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는 각각 100.4와 105.0으로 전달보다 0.7포인트와 0.8포인트 떨어졌다.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의 경기, 생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87.2로 전달보다 2.9포인트 하락해 8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 우리-민주, 광주에 사활 걸었다

정동영의장 등 與지도부 대거 방문 총력전  
 민주당 선거대책위 발족 '호남 석권' 선언

5·31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광주를 선거전의 승패가 걸린 최대 격전지로 보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열린우리당과 정부 장·차관들의 광주·전남 행이 '관권 선거'의 전행이라고 맹공하는 한편, 9일 선거대책위를 발족시키면서 '호남 석권'을 선언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광주시장 후보도 확정하지 않은 열린우리당이 '관권 선거' 논란을 무릅쓰고 광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광주를 수도권의 열세 국면을 만회할 돌파구이자 선거 승패의 시험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열린우리당의 전국적 선거구도가 그만큼 불리하다는 반증이다. 광주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1일

조사한 광주지역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0.8%, 열린우리당 30.6%로 오차 범위 내의 박빙이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8일 '어바이 날'을 명분 삼아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9일에는 강원도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광주로 방향을 틀었다. 정 의장은 이날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의 승리는 5·31 지방선거의 승리이고 광주를 놓치면 5·31의 패배를 의미한다"며 '광주 시민의 결단'을 호소했다. 정 의장은 9, 10일 이틀동안 종교지도자·대학총장단 면담, 재래시장 방문 등 일정을 소화했다. 정 의장은 이날 방문에 이어 오는 18일 5·18 기념 일에도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함께

광주를 찾을 계획이어서 여당의 광주 공략이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호남 석권을 고수해 온 민주당의 반격은 거세다. 여권의 총공세를 신관선선거로 규정하고, 여당의 광주 공략을 수도권 패배를 면피하기 위해 또다시 광주시민을 불모로 잡으려는 술책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장 유종필 위원장은 9일 오후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총선에서 광주시민은 열린우리당을 밀어줄 만큼 밀어줬는데도 돌아온 것은 호남 푸대접과 소외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를 목전에 둔 선심공세에 광주시민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후보자와 당직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3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호남지역 석권'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박광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5월 정신을 화합과 단결인데 분열과 배신으로 얼룩진 열린우리당이 광주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은 광주를 중심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압승, 분열과 배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개헌논의 2008년 총선후에"

박근혜 대표 관훈 토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9일 개헌문제와 관련, "다음 총선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김창기)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시작하면 굉장히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블랙홀'같이 모든 문제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 오로지 개헌문제만 갖고 이야기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표는 "2008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맞아 참 좋은 시기"라면서 "그러나 각 정당이 (개헌안을) 잘 만들어 대선투표 공약으로 심판을 받은 뒤 다음 총선이 끝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 노벨상 광주 정상회의 광주시, 엠블럼 확정

광주시는 오는 6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엠블럼 등 CI (Corporate Identity·기관이미지 통합)를 9일 확정·발표했다. 엠블럼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회담과 만남을 상징하는 손 ▲인권과 노벨평화상을 상징하는 사람의 얼굴 등 세가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손과 얼굴·비둘기가 지구를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열원을 담아내고 있으며, 비둘기와 감싸 안은 손은 방문객을 환영·환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는 엠블럼 외에도 이를 응용한 가도명 배너·홍보탑 등의 도안도 발표했다. /채희종기자 chae@

### 社 告

#### 제17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

15일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장순호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장 강연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15일 오후 6시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17회 광주·전남 여성경제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이 감사로 나서 '2006년 중소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게 됩니다. 포럼은 남녀 시민 여러분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일시 : 5월 15일(월) 오후 6시
- 장소 :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 주제 : 2006년 중소기업 정책 방향
- 강사 : 장순호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 회비 : 1만원
-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062)523-6028  
 광주일보사 경제부(062)2200-620

光州日報社·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

광주일보·KBC 공동 주최  
**전남지사 후보 토론회** ▶ 4면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새해도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ac.kr

물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韓國물가정보  
 TEL.1577-7900 FAX.1577-4802

光州日報

## 5·31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

광주일보 인터넷 광고 서비스 소개

1. 인터넷 광고란 무엇인가?  
 인터넷 광고란 인터넷을 통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인터넷 광고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 인터넷 광고의 장점  
 - 타겟팅: 특정 지역, 연령, 성별, 관심사 등을 기준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  
 - 측정 가능: 클릭률, 방문자 수, 전환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비용 효율적: TV, 라디오 등 전통적인 광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3. 인터넷 광고의 종류  
 - 배너 광고: 웹페이지 상단에 배치되는 이미지 형태의 광고.  
 - 텍스트 광고: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 표시되는 텍스트 형태의 광고.  
 - 동영상 광고: 유튜브, 네이버 TV 등에서 재생되는 동영상 형태의 광고.  
 - 소셜 미디어 광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표시되는 광고.

4. 인터넷 광고의 효과  
 인터넷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 향상, 신규 고객 유치, 판매 증진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타겟팅을 통해 원하는 고객층에게 정확하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5. 인터넷 광고의 신청 방법  
 광주시 인터넷 광고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6. 인터넷 광고의 문의처  
 광주시 인터넷 광고 센터  
 전화: 062-227-9600  
 팩스: 062-227-9601

광주일보 인터넷 광고 서비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